『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1
pp.001-020 ISSN : 1229-9618

중국의 외국어 수용과 중국화에 대한 논의*
— 차용어 적응 방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김태은**

【목 차】

1. 들어가며
2. 부정적 기능의 외국어 수용
3. 중국화를 통한 정착
   1) 의미의 차용
   2) 발음의 차용
   3) 문자의 차용
4. 나가며

【초록】
본고는 중국의 외국어 수용 방식에 대한 고찰이다. 논의는 수용 방식에 따라 중국어 어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반대로 중국화를 통해 중국어 어휘로 잘 정착하는 경우를 나누어 다루고 있다. 부정적 기능을 하는 어휘는 일시적으로 어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생겨났지만 언중의 호응을 얻지 못해 사멸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변체로 인해 언어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국화를 통해 잘 정착하는 어휘는 대체로 중국의 공식 서사체계인 한자의 본질인 표의 기능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언중에게 오래도록 애용됨으로써 토착화에 성공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중국의 사례에 대한 논의지만 음역어의 남용으로 정확한 맞춤법조차 알기 어려운 우리 언어생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중국화, 차용어, 음역어, 의역, 차용번역, 음의겸역, 형역, 한자, 표의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성과임(NRF-2009-361-A00027).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RMS22018-22-0010).
이 논문은 2018년 12월 8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어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연합학술회의-언어와 문자, 그리고 스프트 파워'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교수 (tekimi@yonsei.ac.kr)

1. 들어가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간 접촉을 통해 공생하며 상호 영향 관계 아래 존재하게 된다. 이는 비단 개인 간 뿐만 아니라 집단, 사회, 크게는 국가 간에도 예외 없이 모두 그러하다. 접촉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때 직접적으로 접촉의 매개가 되어 주고 스스로도 빈번하게 접촉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서로의 언어이며 이 언어 접촉으로 인해 생산되는 가장 가시적인 흔적이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용어일 것이다.[1] 따라서 접촉이 활발한 곳일수록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반영되어 새로운 차용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생산해 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중국의 빠른 변화와 성장, 그에 따른 중국어 어휘 속 차용어의 급증은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중국 언어의 눈에 띄는 변화일 것이다.

중국어가 외국어를 받아들여 차용어를 생산해 내는 방식은 대략 다섯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공식 서사 체계가 표의문자인 한자인 만큼 가장 선호해 온 방식은 아무래도 의미를 번역하여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의미를 번역해 들여오는 방식도 세분하여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의역(semantic loan)이고 둘째는 차용번역(loan translation)이다. 전자가 외국에서 새롭게 들여오는 개념이나 문물의 의미를 중국어로 풀어쓴 경우라면 후자는 근원어(source language) 단어를 그 의미와 상관없이 구성 형태소별로 축자적인 번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2]

다음 최근 들어 중국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용의 방식은 음을 차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중국어가 접촉하는 언어들이 대부분 표음문자를 사용하므로 이들 언어들과의 잦은 접촉과 그 결과로 생기는 중국어 차용어는 자연스럽게 음역어(phonetic loan)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음역의 방식은 근원어의 발음만 고려하면 되므로 사실 가장 손쉬운 차용의 방식이겠지만 문제는 중국어의 서사 체계가 표의문자인 관계로 중국어의 음역은 말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게다가 한자는 기본적으로 단음절(mono-syllabic) 단일형태소(mono-morphemic)를 표방하는 문자이므로[3] 중국어의 음운체계와 근원어의 음운체계와의 차이로 인해

---

1) 논의의 성격에 따라 차용어와 외래어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른 언어권과의 접촉을 통해 생산된 어휘를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고유어와 상반된 개념으로 차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므로 외래어와 굳이 구분 짓지 않기로 하겠다.

2) 전자인 의역을 차용어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과거 중국 학계에는 상당히 존재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외래에서 들어온 말을 '借词'와 '译词'로 구분하고 전자는 빌려온 말로 차용어지만 후자는 번역한 말로 중국어 고유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용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외래 색채가 상당히 짙지만 중국어 형태소를 조어(造語) 재료로 삼는 차용번역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원(origin)을 가장 중요한 차용어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의역을 차용어의 한 종류로 보고자 한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의역을 차용어의 한 유형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3) 과거와는 달리 중국어는 더 이상 단음절 단일형태소 언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러나 음역되어 들어와 다음절 단일형태소인 어휘가 중국어에 상당히 증가하기는 했

생기는 소리의 마찰을 음역을 통해 잘 극복하고 차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4] 왜냐하면 한자 하나가 하나의 음절과 하나의 의미를 마치 세트처럼 달고 다니며 근원어의 음소를 전사(轉寫)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원어의 짧은 일음절어가 중국어 음역어로 차용되면 음절수가 증가하여 이음절 이상의 단어가 되기도 하고 글자의 의미와 아무 상관없이 근원어의 음만을 전사하려고 썼는데 사용된 한자의 의미가 영향을 미쳐 원래 차용하려던 단어의 의미 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어휘에 음역어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보인다. 왜냐하면 언어 접촉으로 대량 생산되는 차용어를 일일이 의역할 시간적 여유 없이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언중에서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의역과 음역 말고도 중국어가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근원어의 문자를 들여오는 형역(graphic loan)이라는 방식이 매우 흔하게 사용된다. 한자는 오랜 시간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로 기능해온 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생성된 한자어가 중국어로 들어오는 경우가 형역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중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많은 한자어들이 중국으로 수입되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 그 단어의 서사 체계인 한자와 의미만 차용이 되고 발음은 여전히 중국식으로 읽는다.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쓰는 한자의 자형이 중국에서 쓰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두 중국식 한자의 자형으로 고쳐 사용한다.

네 번째는 흔히 자모어(alphabetic loan)라고 불리는 차용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최근 음역어와 더불어 자모어의 수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모어는 서양의 라틴 알파벳 자모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한다는 점에서 형역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형역의 경우와는 달리 자모어는 발음까지도 외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중국어 어휘로 자리를 잡는 차용어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자모어를 차용어의 한 종류로 보기 보다는 외국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5]

으나 대부분의 중국어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은 단음절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어떤 이음절 이상의 다음절 단어일지라도 그 구성 형태소를 보면 여전히 단음절의 형태소들이 그 단어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유형적으로는 아직까지 단음절 단일형태소 경향이 강한 언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면 图书馆은 삼음절의 한 단어지만 여전히 图, 书, 馆 각각의 일음절 형태소가 도서관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고구마'가 삼음절이면서 단일형태소인 경우와는 확실히 다른 유형의 언어라는 말이다. 고구마는 세 음절이 함께 있어야 하나의 의미를 완성하고 각각의 음절은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어의 유형적 특징은 확실히 차용어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두 언어 체계 간 소리의 마찰이 음역어를 통해 어떻게 적응(adaptation)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차용어 음운론(loanword phonology)이라고 한다. 최적성 이론(OT, Optimality Theory)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 언어학계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모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입력형(input)이 어떻게 적응하여 어떤 출력형(output)으로 실현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언어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 현상의 심리적 실재성(psychological reality)의 여부를 모어 화자들이 생산해 내는 차용어를 통해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여기서 중국어 한어병음을 축약한 형태의 자모어는 근원이 중국어에 있고 문자만 라틴 자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외국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개념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문자도 서양의 라틴 알파벳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자모어의 차용어 귀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태은(2011:662-664)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끝으로 중국어가 외국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혼합형(Hybrid)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하나의 차용어에 앞서 설명한 방식들이 서로 섞여 들어가 하나의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혼합에 축약까지 더해져 차용어 생산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표의문자인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는 원래 축약된 어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6]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지는 축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언어의 유희를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때로는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약형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기한 모든 유형의 차용어들이 중국어 어휘에 잘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일회성으로 잠시 쓰이다 사라지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가 생겨나 서로 경쟁하는 시기를 거쳐 차용어가 사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차용어들도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개념이나 문물에 대한 명명(命名)을 해준다는 점에서 잠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겠으나 대체로 이런 차용어들은 언어생활의 혼란이라는 부정적인 작용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어를 차용하는 과정을 단순히 차용어가 생산되어 어휘 수량이 확장된다고 보는 일차원적인 관점에 머무르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일 것이다. 차용의 유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울인 조어 방식을 선택하여 이후 언중의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혼란의 초래는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차용어를 생산해 내는 것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과거 중국어 어휘에 출현했다 사라진 차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사멸했는지 그 이유를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동시에 차용되어 들어와 중국어 어휘에 오래도록 남아 이제는 중국 고유어와의 차이점을 모어화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리를 잡는 차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과 더불어 중국어 어휘 속에서 그 운명을 달리했던 중국어 차용어들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예를 통해 무분별한 차용어의 생산과 사용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의 언어생활에도 일면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2. 부정적 기능의 외국어 수용

최근 SNS나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다수의 어휘는 순수음역어라고 할 수 있다. 순수음역어는 근원어의 발음만 생각하면 되므로 두 언어의 음운체계 내에서 음소적으로 가장 충실한 전사를 하기만 하면 된다.[7]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어의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6) 作协(作家协会), 网管(网络管理员), 节能(节约能源)과 같은 축약어들은 모어 화자에게는 편리함을 주지만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따로 외워야 하는 어휘 학습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7) 차용어 음운론에서 충실한 전사(faithful mapping)는 주로 근원어의 자음을 위주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 가장 유사한 자음으로 차용하는 언어(borrowing language)가 근원어의 음을 전사하는 경우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세계 공용어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 나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중국어의 순수음역어도 예외는 아닐 것이므로 미국 영어로부터 들어온 중국어 순수음역어의 전형적인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순수음역어의 예[8)]

영어	중국어 음역어	영어	중국어 음역어
poker	扑克 [pʰu.kʰɤ]	coffee	咖啡 [kʰa.fei]
nicotine	尼古丁 [ni.ku.tjeŋ]	show	秀 [ɕjou]
modern	摩登 [mwo.təŋ]	satan	撒旦 [sa.tan]
logic	逻辑 [lwo.tɕi]	guitar	吉他 [tɕi.tʰa]

상기한 예들은 이미 중국어 어휘에 자리를 잘 잡은 경우들을 들어 순수음역어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근원어 음소와 음역어 음소 간의 대응 관계도 충실한 전사로 잘 이루어져 있다. 扑克, 咖啡, 摩登, 撒旦, 逻辑의 경우는 자음이 두 언어 간 음소 체계에서 동일한 자음을 선택하여 대응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尼古丁의 경우는 영어의 파열음이 유·무기자질([±aspiration])에 의해 변별적이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또한 충실한 전사로 볼 수 있다. 반면 秀는 중국어 자음에 치경구개마찰음 /ʃ/와 동일한 음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어 자음 체계에서 가장 지각적으로 유사한 자음으로 볼 수 있는 경구개마찰음 /ɕ/로 전사한 것은 전형적인 충실한 전사로 간주될 수 있다. 끝으로 吉他에서 앞음절의 경우는 중국어 음소배열제약(phonotactics)에서 입력형 [ki]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를 적용시켜 [tɕi]로 적응한 경우이므로 또한 전형적인 충실한 전사로 볼 수 있다. 언급한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용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멸하지 않는 음역어도 이렇듯 중국어 어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순수음역어들은 대체로 음역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본의가 그 음역어가 가리키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구성 한자로 인한 의미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역어의 생산을 막을 수 없다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바람직한 음역어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말한다. 두 언어의 음운체계에 동일한 자음이 존재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치하거나 유사한 자음이 없을 때에는 지각적 유사성(perceptual similarity)을 살려 최대한 비슷하게 들릴 수 있게 전사를 하게 된다. 이때 자음이 우선시 되는 이유는 자음은 모음에 비해 비교적 음소 간 경계가 뚜렷하여 지각적으로도 구분이 명확한 데 반해 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다른 모음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로 자음의 충실한 전사 위주로 음역어의 적응이 일어나게 된다. 즉 모음의 충실한 전사는 자음의 충실한 전사를 위해 양보될 수 있지만 모음의 충실한 전사를 위해 자음의 충실한 전사가 양보되는 경우는 없다.

8) 중국어 음역어의 발음은 근원어와의 충실한 전사 관계를 알기 쉽도록 한어병음이 아닌 IPA로 [ ] 안에 적고 음절 구분은 '.'로 표시도록 하겠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성모 자음의 적응 외에 입력형의 음절말 자음(coda consonant)의 적응은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명도(sonority)가 높은 자음인 비음(nasal)의 경우는 nicotine, modern, satan의 경우처럼 모두 출력형에서 중국어 음소배열제약이 허용하는 음절말 자음 [ŋ]이나 [n]으로 충실하게 전사하고 있지만 poker, logic, guitar 등에서와 같이 허용하지 않는 음절말 말음이 존재하는 경우는 지각적 두드러짐이 낮음으로 인해 출력형에서 삭제되고 있다. 이렇듯 순수음역어의 적응도 차용어 음운론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면 매우 일관된 틀 안에서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수음역어는 주로 고유명사를 전사할 때 많이 쓰인다. 고유명사는 그 자체가 의미의 창출이기 때문에 따로 의역을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어의 공식 서사 체계가 표의문자인 한자이므로 아무리 한자의 의미를 보지 않고 단어를 인식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멸하는 어휘는 대부분 조합된 한자의 뜻이 원래 단어 의미를 왜곡시킬 때 일어난다. 다음은 중국어 어휘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음역어의 예이다.

<표2> 사멸한 음역어의 예

영어	사멸한 중국어 음역어	현재 사용되는 단어
Coca-Cola	蝌蝌啃蜡 [kʰɤ.kʰɤ.kʰən.la]	可口可乐 (음역어)
telephone	德律风 [tɤ.ly.fəŋ]	电话 (형역)
democracy	德谟克拉西 [tɤ.mwo.kʰɤ.la.ɕi]	民主 (의역)
inspiration	烟士坡里纯 [jin.ʂɿ.pʰwo.li.tʂʰwən]	灵感 (의역)
gentleman	竞得儿曼 [tɕjəŋ.tɤ.ɚ.man] 尖头鳗 [tɕjɛn.tʰou.man]	绅士 (형역)

<표2>에 제시된 음역어들은 이제는 더 이상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역어들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생명력이 길지 못해 그 의미를 채워줄 다른 형태의 어휘가 등장함으로써 점차 사멸하게 된 경우들이다. 蝌蝌啃蜡의 경우는 지각적 유사성으로 보자면 현재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可口可乐 [kʰɤ.kʰou.kʰɤ.lɤ]보다 더욱 근원어와 유사한 충실한 전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카콜라가 처음 중국에 상륙하고 蝌蝌啃蜡를 상표명으로 내걸었을 때에는 순수음역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조합이 주는 음료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미지로 인해 대중화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후 한자의 순기능인 뜻을 고려한 음역어 可口可乐로 개명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蝌蝌啃蜡는 언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9] telephone을 음역한 德律风도 두 언어 간 자음의 충실한 전사의 측면에서 보면 잘 조어된 음역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한자의 조합이 주는 의미가 어떤 풍조를 연상하게 하면서 전화라는 본연의 뜻과 잘 대응되지 않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후 일본어에서 电话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언중의 호응을 얻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자 자연스럽게 德律风은 사멸하게 되었다.[10] 다음 영어 democracy를 음역한 德谟克拉西의 경우는 영어 4음절 단어가 중국어의 경우 자음군(consonant cluster)을 허용하지 않아 5음절로 차용한 경우이다. 전통적으로 일음절 혹은 이음절 단어가 많았던 중국의 언중에게는 의미적으로도 연상되는 것이 없는 이런 긴 음절수의 한자 조합은 기억해서 쓰는 데에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어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이다가 民主라는 말이 생겨나 보편화됨과 동시에 결국 언중의 외면을 받

9) 可口可乐와 같은 음역어를 음의겸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3.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0) 电话와 같이 일본에서 형성된 한자어를 중국에 들여와 쓰는 경우가 상기한 바 있는 형역의 예이다. 형역에 대해서는 3.3.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아 사라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든 영어 inspiration을 음역한 烟士坡里纯도 德谟克拉西와 사정이 매우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inspiration의 개념을 채우기 위해 음역되어 쓰였을 텐데 이후 灵感이라는 말이 조어되어 사용되고 언중의 호응을 얻게 되자 음절수가 많아 기억하기 어렵고 한자 조합으로도 연상이 잘 되지 않는 단어 烟士坡里纯은 결국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11] 또 竞得儿曼과 尖头鳗의 경우는 영어 gentleman을 음역하기 위해 생겨난 두 가지 변체로 보이는데 후에 일본식 한자 조합인 绅士가 생겨남으로써 결국 언중의 외면을 받게 된 어휘라고 할 수 있다.[12]

이렇게 상기한 예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멸하는 음역어들은 자신의 서사 체계의 특징을 살리지 못해 결국 후에 서사 체계의 특징이 잘 반영된 어휘가 조어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출현하게 되자 사라져 버린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음역어 조어의 원리로 보면 나무랄 데 없이 충실한 전사가 잘 이루어진 경우지만 그 어휘의 생존력은 음성·음운적인 전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나가 아닌 얼마나 자기 언어만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순수음역어의 경우는 언어생활에 종종 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변체(variation)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데 발음을 비슷하게 전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서로 다른 한자를 써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음절수를 약 400개로 보고 상용자를 3000개, 통용자를 7-8000개 정도로 본다면 중국어에는 동음이의를 나타내는 한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도 동일한 근원어의 음을 충실하게 전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원어와 중국어와의 음소 체계 차이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음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음소와 동일하지 않지만 음성·음운적으로 유사한 정도가 비슷한 음소는 여럿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13] 또 한자가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공동 서사 체계로 존재해 왔던 이유로 인해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한자 음역어 또한 변체를 생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만이나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만들어지는 순수음역어의 경우가 특히 온라인 상에서 혼재되어 쓰이면서 순수음역어의 변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음역어의 변체는 마치 우리말에서 화이팅과 파이팅을 섞어 쓰는 것처럼 어떤 것이 표준 맞춤법인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우리처럼 한 나라 안에서 생성되는 순수음역어의 경우에도 변체의 문제로 맞춤법, 즉 올바른 표기법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대륙 바깥에서조차 생성되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14] 다음은 중국어 순수음역어 변체

---

11) 民主나 灵感은 각각에 해당하는 음역어가 먼저 생겨난 후 다시 의역이 생겨난 것으로 이런 의역어에 대해서는 3.1.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2) 따라서 绅士의 경우도 电话와 마찬가지로 형역의 예로 볼 수 있다.

13) 일례로 영어 자음 /ʧ/는 중국어 자음 체계에서 동일한 경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충실한 전사를 위해 유사한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에서 조음되는 음소로 적응되어야 하는데 중국어 파찰음 /tsʰ/, /tʂʰ/, /tɕʰ/ 모두가 충실한 전사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영어 자음이 [±aspiraiton]에 의해 변별적이지 않은 것까지 고려한다면 /ts/, /tʂ/, /tɕ/까지도 모두 음성·음운적으로 충실한 전사로 간주해야 한다.

14) 우리말의 화이팅과 파이팅은 흥미롭다. 언중들 생활에서는 화이팅의 사용 빈도가 더 높은데도 국립국어원에서 파이팅을 공식적으로 올바른 표기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류 표

의 예이다.

<표3> 순수음역어 변체의 예

영어	중국어 음역어 변체
Trump	川普 [tʂʰwan.pʰu], 特朗普 [tʰɤ.lɑŋ.pʰu]
AIDS	滋病 [ai.tsɪ.pjəŋ](표준), 爱滋病 [ai.tsɪ.pjəŋ]
ice cream	冰淇淋 [pjəŋ.tɕʰi.lin], 冰激淋 [pjəŋ.tɕi.lin], 冰激凌 [pjəŋ.tɕi.ljəŋ]
Hollywood	好莱坞 [xɑu.lai.wu](대륙), 荷里活 [xɤ.li.xwo](홍콩)
salad	色拉/沙拉 [sɤ.la]/[ʂa.la](대륙), 沙律 [ʂa.ly](홍콩)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이름인 도널드는 중국어 음역어로 唐纳德 [tʰɑŋ.na.tɤ]로 통일되어 있다. 반면 성(姓)인 트럼프의 음역어에는 <표3>에 제시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전자의 형태를 음성적인 전사, 후자의 형태를 음소적인 전사로 일컫는다.[15] 그러나 두 형태 모두 충실한 전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전자인 川普는 영어 자음군 [tr]가 지각적으로 파찰음 [ʧ]와 같이 들리므로 이를 입력형으로 하여 충실한 전사가 될 수 있는 출력형인 중국어 자음 [tʂʰ]로 적응시킨 것이다. 반면 후자인 特朗普는 중국어 음소배열제약(phonotactics)에서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음 각각을 충실한 전사에 해당하는 중국어 자음에 대응시켜 적응시킨 예로 영어 자음 [t]와 [r]이 각각 중국어 자음 [tʰ]와 [l]로 적응된 충실한 전사의 출력형이다. 아직 어느 것을 표준으로 규정하지 않아 두 형태가 모두 쓰이지만 구어보다는 문어를 추구하는 보도 매체, 즉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는 特朗普를 주로 쓰고 있다.[16]

AIDS의 경우는 '에이아이디에스'로 읽는 두자어식(initialism) 읽기와 '에이즈'로 읽는 두문자어식(acronym) 읽기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차용어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자모어로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음역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중국어 음역어의 예는 두문자어식 읽기의 음역 차용이다. 그리고 두 가지 음역어 모두 발음이 동일하며 충실한 전사를 한 경우이다. 다만 첫 글자의 한자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艾滋病과 爱滋病이 서로 변체로 사용되다가 후자의 경우 한자의 조합이 '사랑이 일으키는 병'으로 병명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어 전자를 표준으로 정한 예이다. ice cream의 경우는 ice는 모두 冰으로 의역을 하고 있고 cream 부분만 음역을 하고 있으므로 음역 부분만 서로에게 변체로 존재한

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화이팅과 파이팅의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박동근(2014)을 참조하길 바란다.

15)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입력형(input)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음성적인 혹은 지각적인 접근법(perceptual approach)과 음운적인 접근법(phonological approach)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전자는 입력형의 본질이 어떻게 지각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후자는 입력형의 본질은 근원어의 음소여서 차용하는 언어에서 충실한 음소적 대응으로 입력형을 받아들인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입력형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 따라 분석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각각의 접근법 안에서 충실한 출력형(output)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16) 입말의 특징은 주로 지각적인 접근법에서, 글말의 특징은 주로 음운적인 접근법에서 잘 반영된다는 것은 이미 차용어 음운론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음운적인 접근법이 더 적절한 차용어 적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 세 경우 모두 음성·음운적인 각도에서 보면 두 언어 간 자음의 충실한 전사에 해당한다. 다만 말음(coda)의 경우 중국어가 음절말에 [m]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어떤 것은 [n]으로, 어떤 것은 [ŋ]으로 적응된 것을 볼 수 있다. 음역을 하다 보니 cream의 맞춤법이 여러 가지로 생겨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Hollywood는 대륙의 경우와 홍콩의 경우가 다른 한자를 사용해서 음역하고 있는데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통화와 홍콩말은 음소 체계의 차이가 크므로 각각의 음으로 읽을 때 충실한 전사가 된다. 끝으로 salad는 중국의 공식적으로 권위 있는 사전인『现代汉语词典(第7版)』에 色拉와 沙拉 두 가지 변체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즉 표준중국어인 보통화에서 두 가지 모두가 쓰이고 있다는 말이다. 또 홍콩에서는 沙律라는 음역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쓰이고 있다.[17] 실제로 중국내 최대 코퍼스라고 할 수 있는 BCC에서 세 가지 변체를 검색해 보면[18] 色拉와 沙拉의 사용 빈도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난다.

2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차용어들의 예는 한마디로 언중의 언어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주지한 바와 같이 주로 순수음역어일 때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순수음역어가 부정적인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휘의 공백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작용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일회적이거나 여러 유형의 동시다발적 사용으로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모두 궁극적으로 중국어 서사 체계가 한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사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차용어 유입 시 무분별하게 음역하기 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보다 중국어 체계에 맞는 차용 방법을 통해 차용어의 순기능을 더욱 잘 발현시키고 중국어 어휘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한자이기 때문에 더욱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중국어 차용어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7) salad 음역어 변체 色拉와 沙拉를『现代汉语词典(第6版)』, 그리고『现代汉语词典(第5版)』과 비교해 보면 5版의 경우 色拉에 석의가 수록되고 있고 沙拉에 色拉를 보라고 제시되어 있다. 반면 6版부터는 沙拉에 석의가 수록되고 色拉를 보라고 제시되어 있다. 동의어라면 석의가 직접적으로 수록된 어휘가 다른 단어를 보라고 제시된 경우 보다 더 사용 빈도가 높아 상용 정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추측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상용도 면에서 色拉가 沙拉에 비해 유입 당시 사용 빈도가 높았거나 또는 먼저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차차 沙拉의 상용도가 色拉를 따라잡은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두 동의어 간 차이는 앞 글자의 차이뿐인데 홍콩에서 쓰이는 salad 음역어가 沙律라고 앞서 언급한 것을 볼 때 沙律의 보통화 유입이 沙拉의 사용 빈도를 더욱 높이는데 일조한 것은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역어의 본질인 발음의 유사성 면에서 본다면 보통화 음운체계에서 음성적이든 음운적이든 色拉가 沙拉에 비해 더욱 충실한 전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沙拉의 우세를 음성·음운적인 방면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18) http://bcc.blcu.edu.cn/ 참조. 2019년 2월 검색 당시 色拉는 291개가 沙拉 292개가 검색된다. 또 沙律는 9개가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국화를 통한 정착

2장에서 논의한 임시적인 차용어들, 혹은 언어생활에 혼란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기능의 차용어들이 존재하는 반면 중국어 차용어 중 많은 어휘들이 중국어 어휘부에 잘 정착한 후 언중들에게 오래도록 애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언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언중에게 낯설지 않고 쉽게 기억되어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는 차용어들에 대해 유형을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의미의 차용

1장에서 잠시 소개한 바 있듯 중국어 차용어의 유형 중 전통적으로 가장 애용되어 온 것은 의미를 번역해 들여오는 방식이며 여기에는 뜻을 풀어쓰는 방식과 근원어 단어의 형태소를 그대로 직역해 오는 방식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사실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온 것은 전자의 유형에 해당하며 후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겨나 매우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뜻을 풀어쓴 의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9]

<표4> 의역어의 예

영어	중국어 의역어	영어	중국어 의역어
angel	天使 (하늘의 사자)	cement	水泥 (묽은 진흙 같은 것)
laser	激光 (격렬한 빛)	Walkman	随身听 (몸에 지니고 다니며 듣는 것)
vitamin	维生素 (생명 유지 요소)	film	胶卷 (끈끈하게 감겨있는 것)
helicopter	直升机 (곧게 올라가는 기계)	container	集装箱 (모아서 싸놓는 상자)

<표4>에 제시된 예들의 개념은 중국에서 고유하게 생산된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한자 조합이 그 대상 혹은 사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 단어의 한자 조합을 보면 어떤 사물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gel이라는 개념은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모르면 알 수 없는 말이고 cement, vitamin, film 등도 최초에 들여왔을 때 水泥, 维生素, 胶卷 등의 단어가 아무리 개념 혹은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도 실물을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이

19) 杨锡彭, 『汉语外来词研究』, 世纪出版集团, 2007, p.107 참조. 의역어의 예는 필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예에 杨锡彭(2007)을 참조하여 추가하였다. 杨锡彭(2007)에서는 이런 방식의 의역어를 광의(廣義)의 차용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는 중국어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개념이나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에 중점을 두므로 그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역어는 당연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는 의역어를 차용어 혹은 외래어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었을 것이다. laser, Walkman, helicopter, container 역시 모두 다를 바 없는데 한번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면 차용어의 한자 뜻풀이가 그 개념이나 사물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 언중에게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잊혀지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20] 게다가 표의 글자로 의미를 보여주므로 음절수가 길 필요도 없어 더욱 기억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이에 이런 경우들은 변체가 없고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사멸하거나 교체되지 않고 중국어 어휘에 잘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중국인들이 외래 색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물론 随身听은 사물 자체가 오래되어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 빈도가 낮아지긴 했으나 이 단어가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을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래 변체로 인한 언어생활의 혼란을 일으켰던 적이 없었으며 사멸은커녕 최근에 출판된 ≪现代汉语词典(第7版)≫에도 여전히 잘 수록되어 있다.

다음 또 다른 유형의 의미차용은 근원어 단어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축자적으로 번역한 차용번역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차용번역을 통해 들여오는 어휘의 수가 쉽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차용번역은 한자의 의미만을 생각하면 매우 우습거나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 근원어 의미의 자면(字面) 뒤에 숨은 의미도 동시에 알아야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말의 경우는 이런 어휘들을 앞선 의역어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순수음역으로 받아들여 쓰는 경우가 많아 외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고 외국어 형태소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가 거의 퇴색되기 때문에 근원어에서의 자면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자가 근원어 형태소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의미적인 면에서는 매우 이색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서사 체계와 발음을 존중해 받아들이고 있어 언중들의 이질감이 의역만큼은 아니지만 순수음역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용번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5> 차용번역의 예

영어	중국어 차용번역	영어	중국어 차용번역
dark horse	黑马 (검다+말)	download	下载 (내리다+싣다)
hotline	热线 (뜨겁다+선)	superman	超人 (초과하다+사람)
read-only	只读 (단지+읽다)	software	软件 (부드럽다+물건)
new normal	新常态 (새롭다+상태)	money laundering	洗钱 (세탁하다+돈)

20) 중국의 의역어를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에서도 최초에 이런 단어들이 차용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낯선 사물이었을 것인데 현재 우리말 상황에서 보면 천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이 음역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음역어로서 단일형태소 단어가 된 경우인데 한국인이라면 이들 단어에서 여전히 영어의 외래적인 색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사는 중국에서 들여온 형역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한자 단어를 받아들이고 우리식으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dark horse는 경쟁력을 갖춘 어떤 상대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될 때 사용하는 말로서 영어 단어의 축자적인 의미가 '검은 말'이므로 중국어 차용번역에서는 이를 黑(dark)马(horse)로 받아들였다. 또 download의 경우는 한 단어 내의 형태소가 down과 load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어도 이를 그대로 번역하여 下(down)载(load)로 받아들였고 hotline도 직통전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영어 단어가 형태소 hot과 line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어도 그대로 형태소를 번역해 热(hot)线(line)으로 받아들였다. 언급한 경우들과 동일하게 superman도 구성 형태소 super와 man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超(super)人(man)으로 받아들였으며 읽기 전용이라는 의미의 read-only도 只(only)读(read)로 받아들였다. 다만 중국어 어순과 영어 어순의 차이로 인해 형태소의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일한 경우로 돈세탁의 경우 洗(laundering)钱(money)으로 받아들였는데 영어식 어순과 중국어식 어순의 차이가 반영되어 중국어 차용번역의 형태소 순서가 영어 형태소 순서와 달라졌다. 나머지 다른 예인 软(soft)件(ware)과 新(new)常态(normal)는 모두 영어 형태소를 순서대로 번역해 단어를 만들었다.

상기한 예들은 모두 중국식으로 보면 매우 의미가 이상한 단어들이 된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런 차용번역이 늘고 있는 것은 일단 순수음역어 만큼이나 신속하게 차용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차용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수음역어와는 다르게 한자 고유의 의미 기능을 저버리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음절수도 길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언중들의 호응을 얻기 쉽다. 당연히 아무 의미 없이 한자가 조합된 경우보다는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발음도 그냥 조합된 한자를 중국식으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형태소의 의미 조합이 이색적이라는 것 외에는 중국어의 장점을 잘 살린 차용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중국어 어휘에 잘 흡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영어 접두사나 접미사의 활용과 맥을 같이 하면서 중국어 차용번역에서도 접두·접미사로 쓰이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런 점에서는 심지어 매우 생산적인 조어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2]

상기한 의역어와 차용번역은 한자가 서사 체계인 중국어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외국어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아마 그 생명력을 길게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차용어의 생산이 어차피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언어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일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

21) 우리말에서는 이들 중 대부분을 다크호스, 다운로드, 핫라인, 슈퍼맨, 소프트웨어, 뉴노멀 등과 같이 순수음역으로 받아들였기에 형태소의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근원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말에도 종종 읽기 전용(read-only)과 같이 의역을 하거나 돈세탁(money laundering)처럼 차용번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중국어처럼 영어 단어의 의미가 아닌 형태소별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다.

22) 대표적인 예로 중국어 접미사 '-化'는 영어의 '-is(z)e'를 차용번역하여 일찍이 중국어에 유입된 것인데 이후 많은 형태소와 조합하여 현재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조어해내는 매우 생산적인 중국어 접미사가 되었다. 现代化, 结构化, 常态化 등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최근 『现代汉语词典(第7版)』에 새롭게 추가된 예로는 碎片化를 들 수 있다. 碎片化는 영어 fragmentize로부터 온 fragment-ation을 차용한 단어이다.

2) 발음의 차용

2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순수음역어를 포함해서 중국이 음역을 통해 외국어를 차용하는 방식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차용어 안에 음역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를 모두 고려할 때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23] 앞서 언급했던 순수음역어가 한자의 표의기능을 버리고 표음을 위해 사용된 매우 전형적인 음역어라면 중국어에는 중국인들이 음역어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음역으로 여겨왔던 음의겸역(音意兼譯)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존재한다. 음의겸역은 먼저 근원어 단어의 발음을 고려하고 조합되는 한자의 뜻을 더불어 생각해서 차용어를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음역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조합된 한자의 뜻이 근원어 단어의 본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도 의역의 한 갈래가 아닌 음역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Coca-cola의 음역어 可口可乐도 근원어의 발음을 충실하게 전사하면서도 한자 조합의 의미가 '입에 맞고 마시면 즐거워질 것 같은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음의겸역의 방식으로 생산된 차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可口可乐의 한자 조합이 주는 의미가 콜라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의역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은 이 같은 음의겸역의 방식으로 차용된 또 다른 예이다.

<표6> 음의겸역의 예

영어	중국어 음의겸역	영어	중국어 음의겸역
mini	迷你 [mi.ni] (매료시키다+당신)	TOEFL	托福 [tʰwo.fu] (기탁하다+복)
hacker	黑客 [xei.kʰɤ] (검다+손님)	Tide	汰渍 [tʰai.tsɿ] (제거하다+때)
media	媒体 [mei.tʰi] (전달하다+물체)	index	引得 [jin.tɤ] (안내하다+얻다)
gene	基因 [tɕi.jin] (기초적인+요인)	radar	雷达 [lei.ta] (천둥+다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음의겸역은 두 언어 간 음의 유사성을 먼저 생각하고 조합되는 한자의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표6>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매우 충실한 전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들이 조합되어 보여주는 의미가 흥미롭고 재치가 느껴진다. mini의 경우는 迷你가 발음이 근원어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당신을 매료시킨

23)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음의겸역 외에 음역이 포함되는 예는 앞서 ice cream에서 들었던 반음반의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internet을 因特网(因特-inter의 음역, 网-net의 의역)으로 차용한 경우와 credit card를 信用卡(信用-credit의 의역, 卡-card의 음역)로 차용한 경우를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또 beer를 음역한 啤酒의 경우는 beer 부분만 啤로 음역하고 酒는 '술'을 의미하는 중국어 고유 형태소를 붙여 반음반첨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첨가되는 형태소는 앞서 음역된 형태소의 귀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에는 sauna의 음역어 桑拿浴(桑拿-sauna의 음역, 浴-목욕을 뜻하는 고유 형태소)가 있다.

다'는 뜻이 되어 작은 것을 의미하는 미니의 본의와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어만의 독특한 음의겸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迷你는 중국어의 매우 생산적인 형태소로서 자리를 잡아 迷你车(마이크로 자동차), 迷你机(소형 전자제품), 迷你裙(미니스커트) 등 중국어 고유 형태소와 더불어 반음반의역이나 반음반첨가 유형의 단어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TOEFL을 음역한 托福도 자음의 충실한 전사가 잘 이루어진 음역어로서 영어 [l]이 음절말에 오면 소위 'dark l ([ɫ])'로서 지각적 두드러짐(perceptual salience)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략(deletion)의 전략을 사용해 음역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조합된 한자들은 '복을 기탁한다' 즉 행운을 빈다는 의미를 주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비록 외국어로서 영어능력평가시험이라는 TOEFL의 본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중국어의 서사 체계 장점을 잘 반영하여 언중의 호응을 얻어 잘 정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지금은 托 한 글자가 토플을 의미하는 형태소로 자리를 잡아 考托(토플시험을 보다)와 같이 동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hac-ker도 두 언어 간 자음의 충실한 전사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다. 해커가 원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黑客가 비록 컴퓨터에 침입하는 사람의 본의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 부정적 이미지를 '검은 손님'으로 표현하고 있어 언중들에게 잘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 예들 媒体, 引得, 基因, 雷达 등은 모두 음성·음운적으로 매우 충실한 전사임과 동시에 한자 조합의 의미가 영어 단어 본래의 의미를 잘 연상시킬 수 있게 하는 전형적인 음의겸역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Tide는 미국의 유명한 세제 상품명인데 중국어 汰渍의 경우는 渍([tsɿ]) 음절에서 자음의 충실한 전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의겸역 중에는 이렇게 의미를 고려하기 위해 근원음과 거리가 생기는 점을 감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음의겸역을 만들어 사용할 주체가 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닐 것이다. 汰渍는 한자 조합이 '때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주어 세제명으로서 아주 적합한 상품명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상품명들이 음의겸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이 음성·음운적으로 완벽히 충실한 전사를 포기하고 의미를 더욱 중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근원어와의 발음적인 유사성은 근원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에 더욱 편의를 주는 것일 뿐 사실 차용하는 언어쪽 입장만 고려한다면 자기 나라 말의 편리를 더욱 도모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점(利點)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용 방식에 있어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음의겸역의 단어들은 근원어의 음을 받아들이면서도 한자의 본질인 표의 기능을 순기능으로서 잘 발현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용어들은 중국어 어휘로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변체로 인한 언어생활의 혼란도 거의 초래하지 않는다. 수준 높은 차용 방식인 만큼 생산 자체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중국인들의 문자언어생활에도 적합한 방식이므로 중국어 어휘 속으로 깊숙이 자리를 잡아 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어휘 말고도 최근 들어 음의겸역의 방식은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외 상표 명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외 상표 명칭의 발음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도 한자로 표현되었을 때 한자 조합의 의미가 상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음역어를 생산해내는 것인데 상표에 대한 이미지 광고까지 포함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자의 차용

1장에서 언급했던 중국어의 외국어 차용 방식 중에 문자만을 차용하고 중국식으로 읽는 경우를 형역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형역의 경우는 한자라는 낯설지 않은 서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차용 방식이다. 아주 오래전에 차용된 형역의 차용어들은 어느새 중국어 어휘에 깊숙이 뿌리내려 앞서 든 예에 제시되었던 电话와 같이 일반 언중들의 경우에는 고유어와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이처럼 오래된 형역들은 대체로 일본으로부터 신문물이나 신개념을 받아들이던 시절에 차용된 것들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24]

<표7> 오래된 형역의 예[25]

일본어	중국어 형역	일본어	중국어 형역
手続き てつづき (수속)	手续 shǒuxù (수속)	表決 ひょうけつ (표결)	表决 biǎojué (표결(하다))
大丈夫 だいじょうぶ (괜찮다) 大丈夫 だいじょうふ (대장부)	大丈夫 dàzhàngfu (대장부)	覇権 はけん (패권)	霸权 bàquán (패권)

<표7>의 예를 보면 일단 한 눈에 두 나라에서 사용하는 글자의 자형이 비슷한 듯 다름을 알 수 있다. 두 나라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1950년대 이후 간체자를 상용화하면서 두 나라 한자 자형의 차이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라는 공통 매개를 통해 어휘가 손쉽게 전해져 들어올 수 있어 라틴 자모를 사용하는 서양의 언어보다는 더욱 친근한 형태와 의미로 차용될 수 있다. 상기한 예들은 모두 중국인 화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중국어 어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한자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어휘 차용에서 매우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手続き의 경우는 중국어 간체자 手续의 형태로 들어오고 중국식으로 [ʂou.ɕy]라고 발음하면 된다. 表決도 간체자 表决로 쓰고 [pjɑu.tɕɥe]라고 읽으면 되고, 覇権도 権만 간체자로 써서 霸权이라고 쓰고 [pa.tɕʰɥɛn]이라고 읽으면 된다. 大丈夫의 경우는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어에서는 말음 발음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한자를 동일하게 쓰고 대장부의 의미만을 받아들였다.[26] 그리고 발음은 중국식으로 [ta.tʂaŋ.fu]라고 읽는다.

24) 물론 일본어로부터 형역의 방식으로만 어휘를 차용하는 것은 아니다. : 斯纳库(スナック), 扒金宫(パチンコ), 坦普拉(てんぷら)처럼 음역으로 차용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예는 郭伏良, 「从人民网日本版看当代汉语中的日语借词」, 『汉语学习』, 2002年10月第5期, 延边大学, 2002.10, p.36-37 참조.

25) 일본어에서 들어온 형역의 예는 발음을 IPA가 아닌 일본어의 히라가나를, 중국어의 한어병음을 써서 근원어와 형역의 자형(字形) 차이뿐만 아니라 발음도 각자의 방식을 따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26) 이 점은 우리말에서의 대장부와 상황이 동일하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이런 단어들을 중국 고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의 어휘를 일본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차용된 어휘라고 해서 기억하기 어려울 일도 없고 변체가 생겨날 이유도 없다. 차용 초기에는 한자의 조합이 중국 고유의 것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므로 낯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언중들에게 익숙해진 이후에는 차용의 이질감마저 점차 퇴색하게 되어 이들이 차용어임마저 잊혀지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중국에 들어온 일본어의 형역은 중국인들에게 한자 조합이 주는 이질감이 상당히 존재한다. 형역의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여 한자는 간체로 쓰고 발음은 중국식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자기 나라 언중들에게 편리한 점만 취해 차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차피 차용어의 첫 번째 기능이 어휘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 기능은 모두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유어와의 이질감이 적어 종국에는 고유어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어휘의 확장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셈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형역이 상당히 편리한 차용의 방식이다. 비교적 최근에 차용되어 아직은 고유어와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형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8> 최근 형역의 예

일본어	중국어 형역	일본어	중국어 형역
秒殺 びょうさつ (바로 승부를 냄)	秒杀 miǎoshā (바로 승부를 냄)	違和感 いわかん (위화감)	违和感 wéihégǎn (위화감)
芸能 げいのう (예능)	艺能 yìnéng (예능)	中二病 ちゅうにびょう (중2병)	中二病 zhōng'èrbìng (중2병)

<표8>에 제시된 어휘들은 비교적 최근에 중국으로 들어간 형역의 예로서 <표7>에 비해 일본어로부터 온 형역임을 인지하는 언중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혹은 신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매우 중국적이기 때문이다. 의미를 들여왔지만 한자의 자형와 발음을 완전히 중국화시켰기 때문이다. 秒殺의 경우는 殺만 간체 杀로 바꾸고 [mjɑu.ʂa]로 읽으며, 違和感의 경우 違만 간체 违로 바꾸고 [wei.xɤ.kan]으로 읽는다. 芸能은 芸만 중국식 간체 艺로 바꾸고 [ji.nəŋ]이라고 읽으며 中二病은 한자 자형도 고칠 것이 없이 발음만 [tʂuŋ.ɚ.pjəŋ]으로 읽는다. 이 또한 오랜 시간이 흘러 지속적으로 사용된 후에는 지금 느껴지는 이질감이 사라질 것임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27]

중국에서는 한자로 들어오는 모든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명 등을 모두 형역으로 받아들인다. 굳이 근원어의 발음을 표기하려고 애쓰는 경우는 십대들이 한류를 좇아 연예인들의 이

많은데 그 여부에 대한 것은 본고의 논의와 무관하므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기로 하겠다. 다만 중국에서 쓰는 大丈夫라는 말이 고전에서 쓰여 내내 중국어에 쓰였던 것인지, 고전에 쓰인 경우는 일찍이 있었으나 일상적으로 쓰이던 표현은 아닌데 일본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중국으로 들어와 다시 많이 쓰인 것인지는 더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 <표8>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어휘들도 형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자 어휘만 받아들이고 우리식 한자를 쓰고 우리말로 읽는 것이다. 위의 예 중에는 위화감, 예능, 중2병 등이 모두 그런데 유독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한자 어휘는 최근 음역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에서 오는 형역과 동일한 조건의 차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을 보이는 경우로 볼 수 있어 흥미로운 양상이라고 하겠다.

름을 한국식으로 발음하고 싶어 할 때나 오빠(欧把[ou.pa])나 사랑해(撒浪嘿[sa.lɑŋ.xei]) 등과 같은 말을 한국식으로 하고자 할 때뿐이다. 이들 외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유명한 한국의 상표나 사람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중국식 발음으로 말해 주어야 금방 알아듣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9> 한국에서 차용된 상표명과 유명인 형역의 예

한국어	중국어 형역	한국어	중국어 형역
설화수 雪花水 (화장품명)	雪花水 Xuěhuāshuǐ (설화수)	농심 農心 (제과명)	农心 Nóngxīn (농심)
문재인 文在寅 (한국 대통령)	文在寅 Wénzàiyín (문재인 대통령)	송혜교 宋慧教 (한국 배우)	宋慧乔 Sònghuìqiáo (송혜교)

<표9>에 제시된 위 두 가지는 중국에서 유명한 한국 상품명이고 아래 두 가지는 한국의 유명인 이름이다. 화장품으로 유명세가 대단한 설화수의 경우 중국인들은 한자로 雪花水라고 쓰고 [ɕɥe.xwa.ʂwei]라고 읽는다. 제과로 알려진 농심은 우리식 한자 農을 중국식 간체자 农이라고 쓰고 [nuŋ.ɕin]이라고 읽는다. 이들 상품명이 중국에 차용된 것은 형역의 형태이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한자 조합의 의미가 제품 이미지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면서 음의겸역과 같은 효과도 함께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형역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근원어의 발음 정보를 정확히 주고자 순수음역을 했다면 한국에 와서 상품을 살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언급한 효과는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28]

최근에도 만난 한 중국학자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wən.tsai.jin]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자는 중국식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중국식 발음을 모른다면 한자만 제시해도 중국인들은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송혜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송혜교의 한자는 宋慧教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宋慧乔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포털사이트인 百度에서 찾아봐도 금방 확인이 된다. 즉 教가 乔로 잘못 전해져 알려졌다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教와 乔가 한국식으로 읽으면 모두 '교'로 발음되어 동음이지만 중국에서는 전자를 [tɕjɑu]로, 후자를 [tɕʰjɑu]로 읽어 다른 발음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송혜교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한국식 한자음에 따라 한자를 혼동하여 받아들여 통용이 되었음을 말해 준다. 어쨌든 송혜교를 가리키는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졌고 중국에서는 [suŋ.hwei.tɕʰjɑu]로 발음하지만 宋慧乔라는 한자를 쓰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 오인될 이유가 없다. 물론 한국인이 송혜교의 한자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중국인과 대화를 할 때 중국인이 중국에서 쓰는 한자를 제시한다면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개별적이고 드문 일일 것이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한들 그것이 한국인에게 불편을 줄 뿐 중국인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

28) 그러나 전체 중국인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설화수 화장품이나 농심의 과자를 살지, 또 사더라도 그런 일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그 비율을 생각한다면 사실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 경우 음역이 결코 형역보다 선호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는다는 사실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차용은 결국 자국민의 언어생활 편리를 위한 것이지 결코 근원어 화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말에서 毛澤東이라고 쓰고 모택동이라고 지칭하면 될 것을 마오저둥이냐 마오쩌둥이냐, 심지어 마우쩌둥이냐를 따지는 현실에 비하면 중국식 형역은 매우 자국민의 편의를 위한 차용의 방식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4. 나가며

본고에서는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중국어가 외국어를 차용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 적응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일시적으로 생겨났다 언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국어 어휘로 깊숙이 자리 잡아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사멸하는 어휘들의 대부분은 그들 서사 체계인 한자의 본질인 의미를 버리고 만들어진 차용어여서 언중에게 기억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한자 조합의 의미적인 오해나 여러 가지 변체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생활의 혼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자라는 서사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언중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조어되는 경우는 호응을 얻어 오래도록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언어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한자의 본질인 뜻글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의역, 음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고려한 음의겸역, 들어오는 서사 체계 자체가 한자인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역 모두가 차용 방식에 있어 한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즉 외래적인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중국화' 즉 토착화에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 있듯 차용어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 언어에 존재하는 어휘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 그 일차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민족주의에 젖어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다. 그릇된 중화주의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에도 자기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을 최대한 친숙하게 받아들여 오래도록 사용하고자 하는 오히려 실용적인 생각의 발로(發露)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언어 접촉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는 차용어의 생산도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용어는 더욱 더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사례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되는 차용어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부정적인 지난날의 것을 답습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어휘의 범람과 혼란을 막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가 비록 중국의 차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음역어의 남용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정확한 맞춤법조차 알기 어려운 차용어가 범람하고 있는 우리 언어생활 현실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태은, 「어휘계층화(Lexical Stratification)에 따른 중국어 차용어의 범위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지』, 제37집, 중국어문학회, 2011.12.

_____, 「중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음역어를 통해 본 중국의 언어와 문화」, 『인문과학논총』, 제35권 3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08.

박동근, 「외래어 표기 선호도의 변화 양상 연구」, 『언어와 문화』, 제10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4.12.

郭伏良, 「从人民网日本版看当代汉语中的日语借词」, 『汉语学习』, 2002年10月 第5期, 延边大学, 2002.10.

史有爲, 『异文化的使者——外来词』, 吉林教育出版社, 1991.

_____, 『汉语外来词』, 商务印书馆, 2000.

杨锡彭, 『汉语外来词研究』, 世纪出版集团, 2007.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第5版)』, 商务印书馆, 2011.

_____, 『现代汉语词典(第6版)』, 商务印书馆, 2012.

_____, 『现代汉语词典(第7版)』, 商务印书馆, 2016.

周红红, 『汉语外来词的社会语言学研究』, 北京交通大学出版社, 2009.

Tae Eun Kim, *Mandarin Loanwords*, Routledge, 2019.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汉化, 借词, 音译词, 意译词, 仿译词, 音义兼译, 借形词, 汉字, 表意
	영문	Sinicization, Loanword, Phonetic Loan, Semantic Loan, Loan Translation, Phonetic Loan with Consideration of Meaning, Graphic Loan

A Study on the Adoption and Sinicization of Foreign Words in China
: A Focus on the Ways of Loanword Adaptation

Kim, Tae-Eun

This study is about the adoption and sinicization of foreign words in China. It focuses on the types of Mandarin loanwords. Some Mandarin loanwords were temporarily produced, but they disappeared some time later, because those words had not been used frequently by Mandarin speakers in their daily life. Many loanwords belonging to this situation are usually pure phonetic loans(PPL), since they do not fit the nature of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 is ideograph, in which meaning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but PPL simply ignored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some types of Mandarin loanwords have been used well in Chinese people's daily life for the long time. They usually fit the nature of Chinese characters. The first example is one kind of phonetic loans, which is called yinyijianyi(音意兼译). They consider both the pronunciation of the source language and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The next example is the types of translating the meaning of the loanword. This kind of loanword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namely semantic loan and loan translation. The formal translates the concept or things of source language, and the latter translates the morphemes which consist of the source language word. Both types consider the meaning in priority. The last example is graphic loan, which only borrows the characters of source language. They are usually borrowed from Sino-Korean and Sino-Japanese. Mandarin speakers pronounce those loanwords as Mandarin pronunciation of the characters, and change the shape of characters as Chinese style. Thus, this kind of loanword is very familiar to Mandarin speakers, and survives well after borrowed into China.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태은 / 金兌垠 / Kim, Tae-Eun		
	소 속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Em@il	tekimi@yonsei.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2월 08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